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위해 예비비 14억 편성

2년간 실질적 주거안정 마련
전세대출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2025년 5월까지 지속 추진 방침

부산시청 .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해남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총 사업비 136억 확보하며 속도

해남읍·삼산 구림 등 실시
송지면도 함께 신규 추진

해남군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해남읍 등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8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6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남읍과 삼산 구림, 삼산 매정, 북평 영전, 북평 신기 12.1km에 대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실시된다.

아파트와 거주인구가 늘면서 하수 유입 유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을 비롯해 처리장 유입 수질이 낮아 정비가 시급한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송지면 미야·영평 마을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영평마을 일대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근 바다 양식장과 갯벌,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양생태계 오염이 우려되어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영평마을 일원에는 총사업비 34억여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7km와 100여 가구에 대한 배수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해남군은 농어촌 지역간 균형발전과 취약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시설 신설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7건의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을 포함해 총사업비 1187억 원(국비 751억 원)을 확보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 글로컬 관광도시 향해 도약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경주시가 2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9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동국대, 신경주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관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진흥 5개년 계획수립'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관광진흥 계획은 새로운 관광 트레드와 관광행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2024~2028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지역관광의 청사진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 내용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행태 ▲경주만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시장 재활성화 위한 전략적 수립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관광 발전 구조 계획 등을 수립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주다움을 새롭게 구현하고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9대 전략 키워드, 지역 생태 자원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전략 등이 제안됐다. 또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에 따른 복합전시(MICE) 산업을 비롯해 야간 시티투어, 봉황대뮤직스퀘어 등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등이 건의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내 5번째 지정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크워크'의 일원으로 인정 받았다. 중국의 장가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8개국 195개 지질공원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11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크워크 총회'에 참석해 '신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인증서를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신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내 5번째 지질공원이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에는 고창군 13개, 부안군 19개소 등 총 32개소의 지질 명소가 포함됐다. 고창군에선 선운산의 천마봉, 마애불, 진흥굴, 병바위, 소요산 용암돔, 송계리 시생대 편마암, 명매기샘, 고인돌군, 명사십리해변, 구시포 가막도, 쉐니어, 대죽도, 고창갯벌이 지정됐다.

이번 총회장에서는 전세계 지질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지질공원 운영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교류 등을 논의했다.

/고창(전북)=양수녕 기자 ysn6313@

진도군, 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 호응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진도군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살면서 일자리와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들과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군에 거주하며 영농 일자리 체험 등 다양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세방낙조, 운림산방 등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총 9명의 참가자들은 오는 10월말까지 지산면의 길은푸르미 체험관에서 무료 숙박과 매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촌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지역 이모저모

담양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지구로, 2000년 설립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75, 도비 22.5, 군비 52.5)을 투입해 주요 유해시설(계사, 퇴비사, 관리동, 저온 창고 등) 정비 및 재생 사업(스마트 원예 체험실습장, 공공육묘장,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전남)=양수녕 기자

부산시

AfDB 총재와 교류·협력 논의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시청에서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와 만나 부산시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데시나 총재는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참석을 계기로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서 박형준 시장과 만났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아데시나 총재에게 금융 중심지인 '부산 금융'의 위상과 강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 부산의 매력을 설명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전남도

마한역사문화센터 설계비 확보

전라남도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의 중심이 될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2024년 기본설계비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문화재청이 공모를 통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영암 나불도를 선정한데 이어 2024년 기본설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총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아카이브와 교육·전시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마한 복원과 정비사업을 추진할 핵심 지휘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전남=양수녕 기자

영천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9월 11일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와 능력검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에서 주최하는 〈제12회 말산업 국가자격 재활승마지도사/말조련사 1차 실기시험〉과 한국마사회 주관·주최의 〈제14회 승마지도사 실기시험〉을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서 실시했다.

말산업 국가자격 분야는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이며, 만 17세 이상인 자 중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